

**삼성·현대·위성통신사업
美업체와 각각 제휴**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간판기업 격인 삼성전자와 현대전자가 초고속통신사업을 통해 우주공간에서 한판 접전을 벌이게 됐다.

LG의 개인휴대통신(PCS)사업과 선경(SK텔레콤)의 이동전화사업 등에 극받아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을 추진해오던 두 회사는 위성을 통한 멀티미디어 초고속통신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각각 정보통신부에 국제회선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회선임대사업의 경우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사업허가를 해준다는 것이 정통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사업권을 받는 것은 확실시된다.

삼성전자의 해외 파트너는 미국의 대표적 위성제작업체 휴즈사·휴즈사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8개의 정지궤도위성을 발사,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상회의·영상전송·데이터통신·전화 등을 서비스하는 '스페이스웨이'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예상 투자액은 30억달러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데 튜너 등을 합쳐 1천달러(약9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휴즈측 설

명이다.

안테나는 직경 65cm 정도면 서비스받을 수 있지만 방송용일 경우 3.5짜리 안테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웨이 서비스의 최대장점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다양한 전송속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16kbps(초당 전송속도)에서 6Mbps까지 고객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현대전자는 로렐과 켈컴사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범세계위성 이동통신서비스(GMPCS)인 글로벌스타에서 협력관계를 맺은 것을 계기로 로렐사의 '사이버스타'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 사이버스타는 3개의 위성을 발사, 오는 2000년 본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예상비용은 10억달러 이내로 전망된다.

**현대전자, 글로벌스타
인도지역 투자 허가권 획득**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인도에서 위성이동통신(GMPCS)서비스인 글로벌스타 사업허가를 획득했다.

현대전자는 인도 타파르그룹 및 퍼빅컴퓨터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글로벌스타 인도위성서비스사가 정부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사업을 위한 투자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투자승인서를 접수했다고 지난 5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전자는 인도에서의 글로벌스타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현대전자는 뉴델리 캘커타 마드라스 등 3개 지역의 지상관문국 설치공사를 위해 관련 장비를 이미 발주하고 인도 유일의 국제전화사업자인 VSNL사와 관문국 후보지에 대한 실사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9억명에 달해 잠재력이 큰 인도는 정부의 통신시장 민영화 및 강력한 통신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거대통신시장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토면적이 넓어 셀룰러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망구축 비용 및 운용비용이 비싸 서비스권이 도시지역에만 집중되는 반면 글로벌스타는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선망이 부족한 인도지역에서의 전국적인 서비스를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인도는 유선전화보급율이 인구 1백명당 1.3회선에 불과한 통신 후진국 이어서 놓여온 및 격오지의 경우 막대한 시설비가 투입되는 유선전화보다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다고 현대전자측은 설명했다.

현대전자의 이번 사업권 획득은 뉴질랜드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밖에 현대전자는 태국 파키스탄 네팔 핀란드 등 13개국에 대한 글로벌스타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어 이번 사업권 획득이 다른 나라에서의 사업권 획득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LM-3A 발사 성공

중국/독일간 통신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장정(長征; Long March) 로켓사업이 다시 제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국제 보험 업계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장정 3A호는 5월 6일 2톤급의 'Dong Fang Hong-3A2' 위성 통신센터(satcom)를 지구 정지전이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3-축이 고정된(3-axis stabilized) 동 위성은 24개의 C-밴드 트랜스폰더를 지니고 있다.

이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장성공사(China Great Wall)는 가장 최근(94년 11월 29일)의 발사와 같은 발사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4년의 발사는 성공적이었으나 이 위성의 재생 조절 시스템에서의 기름 누출로 인해 궤도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 위성에 대한 대체물은 다임러벤츠 에어로스페이스(Dasa)사

의 기술적 도움을 얻어 중국 우주기술원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이것은 예상 수명(8년)과 출력면에서 더욱 향상되었다.

이번 발사의 성공은 지난 8월의 상단(upper-stage) 실패와 95-96년간의 연속적인 발사 폭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실패는 장정 로켓이 보험을 들지 못하게 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

그 이후 Great Wall사는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 주요 소프트웨어와 품질 관리를 개선시켰다. 대부분의 대형 보험업자들은 앞으로 최소한 3-5년의 성공적인 발사와 장정 로켓의 성능 데이터를 보고 나서야 다시 거래를 고려할 것이다.

다음에는 중국의 정지 기상 위성 'Feng Yung 2B'를 LM-3A가 발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페이스 시스템즈/로랄(SS/L)이 필리핀위성주식회사를 위해 제작한 'Mahuhay' 통신위성은 LM-3B가 맡게될 것이다. SS/L는 또한 95년 LM-2E의 폭발로 인해 손실된 홍콩 'APT Satellite Co.'의 위성을 대신할 'Apstar-2R'을 제작하고 있다.

러시아 서비스 모듈 조립 진행

러시아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여러 달 동안 지연돼오던 서비스 모듈의 조립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모스크바 근처의 대규모 시설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한다.

서비스 모듈과 이것의 지상 테스트가 지연됨에 따라 국제 정거장의 초기 조립이 최소 98년 중순까지 연기되었다.

21톤 짜리 초기 비행체(primary flight vehicle)는 실제로는 85년에 두 번째 미르(Mir) 우주정거장의 코어(core)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선체(船體; hull)이다. 소련 연방의 해체이후 미르-2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되다가 서비스 모듈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꺼낸 것이다. 기술자들은 현재 이 서비스 모듈에 있는 공 모양의 도킹용 허브(hub)를 손보고 있다.

서비스 모듈의 지상 테스트용 버전도 이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는 중이며 비행용 모듈보다 조립 작업의 진척이 빠른 상태이다.

Proton 부스터를 이용한 이 서비스 모듈의 발사는 98년 12월로 일정이 잡혀있으며, 이것에 앞서 역시 Proton을 이용한 러시아의 최초 FGB 부분과 미국의 Node-1 부분의 발사가 각각 98년 6월과 7월로 예정되어 있다.